

민주당 배심원 신원노출·포섭 우려

개별이동 허용... 후보들 사전접촉 가능성

민주당이 혁신 공천 방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전문 배심원에 대한 감독·관리 부실 등으로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특히,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도입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지역 배심원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각종 불·탈법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어 상당한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시민공천배심원제 시행과 관련, 전문배심원들이 개별적인 이동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 배심원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어 한 곳에 모으기가 어려운 데다, 버스보다는 기차나 비행기 등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겠다는 요구도 상당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개별 이동시 전문 배심원들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총괄적 관리 감독이 어렵게 되면서 공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지만 이미 전문배심원단에 참여하는 일부 단체의 명단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 배심원들의 개별적 이동 과정 등에서 특정 후보 측과의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배심원 참여 단체와의 정치 협력이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점

도 시민공천배심원제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시민공천배심원제의 흥행을 위해 대규모 '정치 협약식'을 갖기로 했으나 전문 배심원 참여 단체들이 알려질 경우, 후보자 및 이해 관계자들의 접촉 등이 예상된다며 이를 무기한 연기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 협력이 이뤄지면서 전문 배심원단이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하기보다는 특정 성향으로 치우치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전문배심원단 구성과 관련, 중앙당 개입설 등 각종 루머도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지역 배심원 확보를 위한

각종 불·탈법 선거 운동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시민공천배심원제로 후보가 결정되는 무안군수 후보 경선의 경우, 모 후보 측에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시민배심원 응모에 참여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안군의 경우, 유권자가 5만여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직 동원이 이뤄질 경우, 지역 배심원 구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무안 유권자들에게 무차별 전송된 특정 후보 측의 시민배심원 참가 독려 메시지.

향후 공정성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도 막판 시민 배심원 확보를 위한 대규모 조직 동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알림

'월요광장' 펼친 바꿉니다

광주일보 대표칼럼 '월요광장'의 펼친이 5일부터 새로 바꿉니다. 광주일보는 행정과 법률, 복지, 경제 등 각계 전문가 4명을 새로운 필진으로 선정했습니다. 새 펼친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를 전문지식과 해안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기대합니다.



〈임우진이사장〉 〈서선희교수〉 〈구길선변호사〉 〈김병술본부장〉

◇임우진 한국지치경영평가원 이사장
▲제 22회 행정고시 합격 ▲전남대 행정학박사 ▲광산구청장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장·기획관리실장·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지방행정연수원장

◇서선희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사회학 박사 ▲광주발전전략연구원 선진복지분과위원장 ▲광주시 다문화가족 자문위원 ▲광주여성발전센터 자문위원

◇구길선 변호사
▲서울대 법대 ▲제 25회 사법시험 합격 ▲일본 게이오대 연수 ▲광주고법 판사 ▲광주지법 소년부(가정)지원장 ▲광주지법 해남·순천지원장 ▲광주지법 형사부 부장판사

◇김병술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
▲연세대 상대 ▲성균관대 경영학박사 ▲무역협회 무역연수원장, 고객지원팀 무역건설팀 ▲한국재정경제연구소 전문위원 ▲서울사이버대학 국제무역물류학과 겸임교수

光州日報社

딸기·참외도 농작물 재해보험

기후변화 따라 대상 추가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와 관련, 농작물 재해보험의 적용 대상을 딸기, 참외, 토마토, 배추, 오이 등 5개 작물을 추가, 올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태영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인 이계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를 갖고 최근 잦은 눈·비에 따른 농가 피해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상기후에 따른 시설 농작물의 생육부진과 습해 등을 감안, 수박으로 한정됐던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딸기, 참외, 토마토, 배추, 오이 등 5개 작물을 추가, 올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키로 했다.

한편, 전남의 경우 최근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부족과 토양수분 과다로 딸기, 시설수박, 애호박, 토마토, 풋고추, 오이, 화훼류 등 시설하우스 재배 작물들이 생육이 저조하고 병해 발생이 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풍랑에 수색중단 야속한 서해바다

천안함 침몰 9번째... 오늘 민간 조사단 투입

서해 백령도 해상에 침몰한 천안함의 실종자 탐색 구조작업에 나선 군은 지난달 31일 함미와 함수 쪽에 진입통로를 확보하고도 기상악화로 작업이 일시중지돼 선체로 진입하지 못했다. 민·군 합동조사단이 이르면 1일 현장에 투입될 계획이어서 진상 조기에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 기사 3·6면〉

합참은 이날 "현지의 기상악화로 천안함의 실종자 탐색 구조작업이 오늘 하루 일시 중지됐다"면서 "내일 기상 상황이 좋아지면 탐색 구조작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참 정보작전처장인 이기식 준장은 "구조활동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리며 파고는 1.5~2.5m. 바람은 서풍이 초속 8~12m, 수온 섭씨 4.2°C, 유

속은 5.6 노트로 상당히 빠르고 여건이 좋지 않았다"고 일시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군은 내주부터 실종자 탐색 구조작업과 함미와 함수 부분을 인양하는 계획을 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군은 박정기 합참 전력발전본부장(육군중장)이 단장을 맡고 민·군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천안함 침몰사고 합동조사단을 구성, 1일 사고현장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에는 합참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부조사본부의 해상무기와 폭약 전문가, 선박계통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해군은 그간 탐색 구조작업을 통해 함미와 함수 쪽에 진입을 위한 출입문(도어)을 각각 1개씩 확보했으며



이심전심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한주초 혼위 빈소'를 조문해 눈물을 흘리며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격적인 선체 내부 수색작업을 앞두고 있다.

해난구조대 전문가인 송무진 중령은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크기로 선체를 뚫는데 1주일도 소요되는데다, 무기체계가 전부 다 제거되지 않는

상황에서 400암페어의 고전류를 물속에서 흘려보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체를 뚫는다는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영 국방장관은 침몰함의 사고원인을 규명할 '핵심 키'로 부각되

는 천안함과 속초함, 제2함대사령부간 교신록 공개 여부에 대해 "많은 부분이 군사적인 내용이라서 공개하기는 곤란하다"면서 "어떤 부분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저희도 확실히 규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